



든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解例가 正音의 전 제작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작업일지가 아니고, 正音이 완성된 후에 이 새로운 문자의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간략히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解例가 正音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 이상 解例의 연구는 正音 연구의 한 과정이자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解例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해서 正音 연구가 완결된 것은 결코 아니며 正音에 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한 正音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正音의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예컨대, 初聲의 경우 우선 조음위치별로 소리를 분류하여 각 조음위치별로 가장 약한(最不厲)소리를 기본자의 대상으로 삼고 그 자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뒀거나, 혹은 中聲의 경우, 天, 地, 人의 모양을 본따 기본자 ‘·, 一, 丨’를 만들었다는 등의 解例의 설명 그 자체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자원리가 어떻게 개발될 수 있었는가 즉 각 소리들의 상대적인 세기는 어떻게 측정되었으며, 中聲의 기본자는 왜 하필 /·, 一, 丨/의 세 모음을 그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正音의 初, 中聲의 목록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등 解例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이런 구체적인 궁금증들은 사실 제자원리에 대한 解例의 간략한 설명이 있음으로 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보면 解例는 우리에게 正音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많이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즉 解例는 正音의 여러 제작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론만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숙제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 2.

正音의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몇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解例는 물론 당시의 다른 문헌들도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칫 근거부족의 추론에 그치기가 쉬우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들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분명히 正音이나 혹은 正音에 관한 解例의 여러 기술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면, 당시의 문헌등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다고 해서 논의가 보류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당시 학자들의 직접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의 일차적인 목표도, 解例 등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으로 해서 그동안 별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正音의 완전한 이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들을 우선 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 논의에서 제시하고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첫째, 初聲의 제작과정 그중에서도 初聲의 목록작성 과정에서 있었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시행착오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봄으로써 初聲의 목록작성 경위를 추적하는 것과

둘째, 正音의 체계적인 제작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소리의 세기(厲)나 음양 등의 자질이 당시에 어떻게 관찰, 측정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 과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는 물론 解例등의 문헌에 보이는 당시 학자들의 증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참고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그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한 문헌기록의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正音 제작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작업과정과 고민내용을 상식적으로 추리해 보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가 正音과 같은 음소문자 겸 자질문자를 새로이 만드는 입장이 되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과정이 있고,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15세기의 正音 제작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에 근거한다. 正音의 제작과정에 대한 추적에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正音이라는 최종 결과와 解例의 설명이라는 중간 길잡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正音體系와 과정별 중간 결론에 해당하는 解例의 설명을 통해 우선 다음과 같은 正音의 여러 제작과정과 연구 내용 그리고 그에 대

한 당시의 결론들을 대강 재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1) 정음의 제작 과정

제작과정	연구내용	결 론
① 문자단위의 결정	· 音節의 三分 · 初聲 = 終聲의 발견	음소단위문자
② 初, 中聲의 目錄作成 목록작성	?	初聲 17(23) 中聲 11 합 28字
③ 音韻資質 分析및 음운체계 수립	?	‘厲’측정 음/양 자질
④ 제자원리 개발및 자형 결정	?	象形, 加畫, 合字등
⑤ 表記法 결정	?	음절단위표기 “八終聲可足用”등

(1)의 표를 보면 우리의 과제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즉 正音의 제작은 여러 단계의 작업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완성된 正音體系나 解例의 설명을 통해 각 과정의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각각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음절을 어떻게 三分할 수 있었는가’ 혹은 象形이나 加劃 등의 제자원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등 모든 것이 궁금하고 正音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지만 본 `논의에서는 일단 ②와③ 즉 正音의 28자 목록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중간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그리고 ‘厲’

1) 訓民正音 本文등 당시 문헌들은 한결같이 正音을 28字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최만리 상소문에는 諺文27字로 나오기 함) 그러나 당시의 音素수나 제작된 文字수는 사실 28개 이상이다. 물론 並書, 連書 등에 의한 문자는 제외하고 單文字만을 꼽는다면 분명 28字가 되지만 28개의 音素만을 單文字로 제작하여 正音은 28字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까닭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나 ‘음양’ 등의 음운자질은 어떻게 착상, 관찰되었을까 하는 두가지 문제에만 우선 관심을 국한시키기로 한다.

우리의 첫번째 과제 즉 正音의 음소목록 작성경위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주로 初聲의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初聲 17자에 대해서는 그 목록이나 자형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 제기나 그에 대한 논의가 기왕에도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初聲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결과만을 통한 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즉 解例의 설명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몇가지 의문이 발견된다고 해서 解例의 설명을 쉽게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우리는 우선 결과보다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당시의 구체적인 여러 작업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완성된 正音(初聲)이라는 문자체계나 그에 대한 解例의 여러 언급이 단일한 작업과정과 동시적인 결론의 소산이 아니고, 시차를 가진 여러 작업과정에서의 가변적인 결론이나 시행착오들이 종합된 산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번째 과제 즉 正音의 체계적인 제자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厲’등의 음운자질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재료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도 일단은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설 제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줄고(1987)에서 음운자질의 설정 목적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논의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의 결론은 ‘국어의 음운자질은 국어의 음운체계나 음운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국어의 음운현상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국어에 필요한 음운자질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줄고(1987)는 正音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었지만 그때의 결론은 현재의 正音 논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즉 결론부터 말하자면, 15세기의 경우에도 ‘厲’등의 자질설정 목적은 궁극적으로 正音의 체계 수립에 있었고, 이를 자질의 설정방법은 당시의 음운현상을 관찰, 분석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본 논의와 같이 문헌기록 등의 확실한 증거에만 완전히 근거하지 못하

는 추론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한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논의를 펴고자 하는 것은 결론의 완벽성보다는 正音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문제의 제기라는 점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추리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확인된 기정 사실들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리고 미지의 숙제들을 푸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 II. 初聲의 목록작성 경위

### 1.

正音은 세계 문자사상 유례없는 독창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여기서 독창성이란 제자원리(字形 결정과정)에 관한 표현이요, 과학성이란 체계적인 제자의 바탕이 된 고도의 음성학적 이론을 지적하는 것이다. 正音의 독창적인 제자원리는 解例에 그 내용이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 설명에 의하면, 初聲 17자는 우선 각 조음위치별로 가장 약한 소리를 대상으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적인 제자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正音의 初聲체계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들어있음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것은

첫째,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만들어졌다는 正音의 初聲 17자에는 실제 국어표기에서 거의 쓰이지 않은 ‘ㅇ’이 들어있고, 오히려 국어표기에 필요했던 ‘ㄴ’은 빠져 있다는 점

둘째, ‘ㅇ’은 당연히 牙音의 기본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喉音 ‘이’에 변칙적으로 가획된 모양으로 제자된 것.

셋째, ‘ㄱ’과 ‘ㅅ’도 체계적인 제자원리에 어긋난 異體字라는 점 등이다. 여기에 우리가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당시 국어에 분명히 음소로 존재했다고 판단되는 경음계열이 제자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그동안, 解例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正音의 제작경위나 제자원리에 대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즉 ‘ㅇ’의 경우는, 정음이 최초 완성된 世宗25년의 원안에서는 28자가 아니고 ‘ㅎ’이 빠진 27字였다는 가설을<sup>2)</sup>, 그리고 ‘ㅇ’이나 ‘ㅅ, ㄹ’등의 이른바 異體字들은 正音제작상의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라는 비판을 야기시켰으며, 더 나아가서는 解例에 분명히 명시된 ‘象形’이나 加劃이 正音 본래의 제자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정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sup>3)</sup>

正音과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문자체계에서 앞서서와 같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주목할만한 일이며 따라서 기왕의 많은 논의들에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집요하게 추적해 온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도 물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왜 생겨났을까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룬 기존의 논의들에서 느끼는 한가지 아쉬움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간의 논의들이 이들 문제의 소지는 제대로 포착했지만 정작 문제의 성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ㅇ’이나 ‘ㅎ’ 그리고 ‘ㅇ’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단순하고 막연하게 그저 ‘제자상의 의문’이나 혹은 ‘제자원리에 관한 의혹’ 정도로만 인식하고 문제에 접근하려 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正音과 같은 체계적인 음소문자의 제작은 여러 단계의 작업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제자단위인 ‘음소의 목록 결정’, ‘음운체계의 수립’, ‘제자원리의 개발’, ‘자형 결정’등이 바로 그 과정들이다. 따라서 正音의 初聲字에서 발견되는 앞에서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제자과정에서의 어느 단계, 어떤 작업에서 비롯된 문제들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李東林(1977)

3) 金完鎭(1983)에서는 正音의 字形이 본래 漢字의 일부를 취하거나 본따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象形, 加劃 등의 원리에 의해 다듬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어의 표기에 별 소용이 없었던 ‘ㅇ’의 존재나 반대로 국어표기에 필요했던 ‘빙’이나 경음 계열의 누락 문제는 분명 제자원리나 자형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대상을 정하는 음소의 목록작성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ㅇ’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字形 결정이나 제자원리상의 문제도 되고 말았지만 이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제자 이전의 음소목록 작성이나 음운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ㅇ/이 처음부터 초성의 제자목록에 들어 있었고, 그것이 牙音 계열이라는 사실을 正音 제작자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서 제자시에는 牙音의 기본자로 삼지 않고 喉音 ‘ㅇ’에 변칙적으로 가획하여 제자했다면 이는 분명히 제자원리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사정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解例의 ‘ㅇ’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正音 제작자들이 애당초 /ㅇ/을 초성의 목록에서 누락시켰거나 혹은 추가 제자시에도 /ㅇ/을 牙音이 아닌 喉音 계열의 소리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시행착오를 보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解例의 편찬 당시에는 /ㅇ/이 牙音의 不清不濁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ㅇ’이 이미 잘못 제자된 이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唯牙之ㅇ 雖舌根閉喉 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以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今亦取相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解例 制字解)

위와 같은 解例의 설명은 ‘ㅇ’이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例外的으로 제자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ㅇ’이 牙音의 기본자가 되지 못한 것은 /ㅇ/이 /ㅇ/과 소리가 비슷하여 韻書에서도 혼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正音 제작자들이 /ㅇ/이 牙音의 不清不濁音이라는 사실을 제자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보면 이러한 변명은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왜냐하면 韻書에서는 혼동하지만 분명히 다른 음이고, 이들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면 混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혀 다른 자형으로 제자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ㅇ’에 대한 解例의 기술 내용은 결국 韻書에서의 혼동때문에 正音제작자 자신들도 처음에는 /ㅇ/과 /ㅇ/을 혼동했었다는 실수에 대한 고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과 /ㅇ/의 혼동, 그것은 결국 이 두 자음을 하나의 음소로 설정했다거나 혹은 /ㅇ/을 /ㅇ/과 같이 喉音 계열의 소리로 분류했음을 뜻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ㅇ’의 문제도 일단 제자 이전의 음소목록 작성이나 음운체계 수립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ㄱ’과 ‘ㅅ’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은 관점에 따라 예외적인 제자 즉 제자원리상의 의문으로 비칠 수도 있겠으나, 이들에 대한 解例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일단 제자상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解例 制字解에서는 “半舌音ㄱ 半齒音ㅅ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畫之義焉”이라하여 ‘ㄱ’과 ‘ㅅ’이 혀와 이의 모양은 본따으나 자체에 가획의 의미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을 부연하면 /ㄱ/과 /ㅅ/은 半舌音과 半齒音으로 舌音이나 齒音 계열의 소리들과는 별도로 제자되었고, 혀와 이의 모양을 본따 ‘ㄱ’과 ‘ㅅ’의 자형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들 자형이 ‘ㄴ’과 ‘ㅆ’에 가획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형에 가획의 의미가 없다고 친절하게 주석한 것이니, △과 ㄱ은 제자원리상으로는 사실 하등의 문제가 없다. 문제를 굳이 삼는다면 ㄱ이나 △을 설음이나 치음에 포함시키지 않고 반설음이나 반치음이라는 별도의 계열을 설정한 체계설정 방법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正音의 初聲과 관련하여 의문점으로 지적되었던 몇가지 문제들은 사실 제자원리와 관계된 것들이 아니고 初聲의 목록작성이나 음운체계 수립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은 正音의 초성목록 작성 과정과 음운체계 수립 과정을 자세히 조명해 보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 2.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正音과 같은 체계적인 音素文字를 제작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선행과제는 제자의 대상이 되는 음소목록의 결정과 음운

체계의 수립이다. 이 과정은 正音의 제자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많지 않았다. 물론 解例 등에도 이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거의 나와있지 않다.

우선 初聲 17개의 목록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최종적으로 완성된 初聲 17자의 목록을 볼 때 먼저 관심이 쏠리는 것은 初聲의 목록이 처음부터, 즉 ‘象形’이나 ‘加劃’이라는 제자원리의 개발이나 그에 따른 字形 결정 이전부터 17개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자원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이들 17개의 初聲들이 동시에 제자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은연중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ㄱ’은 본래 빠졌을 것이라는 논의는 있었다) 따라서 17초성의 목록이 일단 결정된 후에 이들이 동시에 제자되었다는 관점에서 결과(17初聲字)를 보니까 ‘ㅇ’이나 ‘ㄹ’, ‘ㅍ’ 등의 異體字가 문제가 되고, 이들에 대한 解例의 설명도 잘 납득하기 어려워 결국 제자원리등에 대한 解例의 기술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初聲 17자가 동시에 제자되었다는 즉 최초의 제자 이전에 초성의 목록이 17개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ㅁ’이나 경음들이 초성의 제자목록에서 끝내 누락되었듯이 ‘ㅇ’ 등의 자음도 최초 목록에서는 누락되었다가 1차 제자가 끝난 다음에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며 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신중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正音의 初聲 17자가 동시에 제자된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별도로 추가 제자되었을 가능성은 바로 ‘ㅇ’이나 ‘ㄹ’, ‘ㅍ’ 등의 字形 그 자체와 이들에 대한 해례의 이례적인 언급이 시사한다. 즉 ‘ㅇ’이나 ㄹ, ㅍ 등은 字形上, ‘ㅇ’이나 ‘ㄴ’, ‘ㅍ’ 등 象形에 의한 기본자나 기본자에 체계적으로 가획하여 제자된 다른 初聲字들보다 나중에 제자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ㄹ/이나 /ㅍ/은 초성체계상 맨 마지막의 순서이므로 이들이 동시에 제자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맨 나중에 제자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ㅇ/의 경우는 분명 사정이 다르다. 즉 /ㅇ/은 牙音의 不清不濁音이므로 이 자음이 다른 자음들과 동시에 제자대상이 되었었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제자되었어야 하고, 그랬다

면 ‘ㅇ’과 같은 자형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제자되었어야 할 /ㅇ/이 가장 나중에 제자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ㅇ/은 1차 제자 목록에서는 누락되었다가 1차 제자가 끝난 이후 추가되고, 그것도 牙音이 아닌 喉音으로 잘못 분류된 상태에서 제자된 결과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正音의 제자시 초성의 목록작성 과정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正音의 初聲 목록이 어떤 과정으로 작성되어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初聲의 목록작성 경위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正音의 初聲目錄이 어당초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解例 등의 당시 문헌에서는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正音의 初聲體系)를 토대로 상식적인 추리로써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선 살펴야 할 것은 正音의 표기대상과 初聲에 관한 당시의 理論的背景이 될 것이다. 이중에서도 正音의 표기대상 즉 正音이 본래 무엇을 적기 위해 만들어졌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표기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음소목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正音은 國語의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正音의 주 표기대상인 국어에 외래어인 漢字語도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正音이 만들어지고 곧 이어 한자음 표기를 위해 東國正韻이 편찬되었으며 東國正韻式 한자음의 표기에서는 17初聲 외에 全濁字 등이 추가로 제작, 사용된 당시의 일련의 상황은 얼핏 正音 28자는 한자음을 제외한 순수 국어만을 표기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17初聲이 처음부터 순수 국어만의 표기를 위해 제작되었다면 그 목록이나 체계도 당연히 순수 국어음을 분석하여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17初聲과 관련한 모든 의문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사정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국어음을 분석하여 17初聲의 목록을 결정했다면 우선 국어에 ‘ㅇ’이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데 그것이 17初聲 목록에 들어갈 리가 없으며<sup>4)</sup>, 국어에 분명히 음소로 존재하는 ‘ㅇ’이나 경음, ㅁ 등이 누락되는 실수도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또한 17初聲의 體系가 한자음을 대상으로 한 韻書의 字母體系에 근거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正韻이 비록 국어의 표기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초성목록이 순수 국어음을 분석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국어 외에 正韻의 표기대상으로 고려되고 더 나아가 初聲의 제작목록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른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한자어와 한자음일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국어에는 많은 한자어가 들어와 있으며 국어 문장의 표기에는 한자어의 처리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正韻 제작들은 初聲의 목록 결정시 한자어에 대해 어떤 표기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우선 正韻이 제정된 이후 正韻으로 간행된 15세기 문헌들을 보면, 「龍飛御天歌」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헌들이 한자어에 대해 漢字와 正韻의 이중표기를 보여준다.<sup>5)</sup> 正韻으로 적힌 한자음은 물론 당시의 현실 한자음(이하 국어식 한자음으로 부름)이 아니고 이른바 東國正韻式 한자음이다. 그렇다면 正韻 제작자들이 正韻의 초성목록을 처음 작성할 때 국어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였는가? 물론 최종 결과만을 보면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첫째, 東國正韻은 正韻

- 
- 4) 순수 국어의 표기에 ㅇ이 필요치 않음은 正韻 제작자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用字例에 ㅇ 用例가 없거나 合字解의 “初聲之ㅇ與○相以於諺可以通用也”라는 지적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 국어음을 분석하여 /ㅇ/이 초성목록에 들어갔다면 실수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 그렇더라도 존재하는 ㅍ素를 목록에서 빠뜨리는 실수는 가능하겠지만 없는 음소를 목록에 집어넣는 실수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5) 물론 漢字와 正韻으로 함께 표기하는 것에도 두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月印千江之曲」의 경우처럼 正韻 표기가 앞에 크게 적히고 한자는 그 아래 약간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적히는 경우요, 다른 하나는 「釋譜詳節」의 경우처럼 한자가 큰 글씨로 앞에 적히는 것이다.

이 일단 완성된 한참 후에 편찬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東國正韻式 한자음의 표기에는 17初聲 외에 全濁字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東國正韻式 한자음이 正音 제작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初聲의 목록 작성에 처음부터 영향을 미쳤다면 正音이 시종일관 28자로 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자어 표기에 대한 正音 제작자들이 방침이 正音의 제작을 전후하여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sup>6)</sup> 즉 正音의 제작 당시에는 東國正韻式 한자음의 표기는 엄두에 두지 않았고, 漢字語는 단지 漢字로만 적거나 혹은 국어식 한자음으로 적고 읽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龍飛御天歌」의 表記나 解例 合字解의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字 如孔字 魯人사람之類”의 규정 등은 전자의 가능성을, 그리고 世宗 25年の 實錄 기록에 나오는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合之然後乃成字凡于文字乃本國俚語皆可得而書~” 즉 正音28자로 漢文은 물론 국어도 다 적을 수 있다는 기사는 후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한자어를 正音으로만 적으면 뜻이 분명하지 않고 그렇다고 漢字로만 적으면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漢字도 쓰고 正音으로 注音도 하는 표기방식이 채택되고, 注音을 하려다 보니 기왕이면 심하게 訛傳된 현실음보다 原音에 가까운 교정음으로 注音하여 한자음 교정의 효과까지 노리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리라는 것이다.<sup>7)</sup> 世宗 25년에 일단 완성한 正

- 6) 正音과 관련한 당시의 모든 정책이 시종일관 확고부동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표기법의 변화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주지하듯이 15세기의 正音 문헌들 중에서 「龍飛御天歌」나 「月印千江之曲」은 다른 문헌들과는 달리 八終聲 규정이나 연철 표기방식이 채택되지 않고 현대 맞춤법과 같은 표기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결국 正音에 관한 당시의 여러 정책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가 될 것이다.
- 7) 흔히 15세기의 漢字音 처리 문제를 현대 표기법에서의 서구어 등 外來語 문제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漢字語가 국어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망각한 피상적인 견해로 보인다. 즉 현대의 서구 외래어들이 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入名, 地名, 官名, 親族名稱 등에까지 깊

푼을 바로 반포하지 않은 채 韻書 번역에 착수하고<sup>8)</sup> 成三問등을 요동에 보내 韻書를 질문하는<sup>9)</sup>등 韻書 연구에 다시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그 뒤에 正韻의 반포나 東國正韻의 편찬이 이루어지는 등의 일련의 작업들은 한자음에 대한 정책이 正韻 완성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는 우리의 추정에 긍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추정대로 東國正韻式 한자음으로의 교정 방침이 正韻 28자가 일단 완성된 이후에 결정된 것이라면 世宗 25년에 완성된 正韻이 3년 후어나 반포될 수 있었던 까닭도 쉽게 짐작이 된다. 즉 완성과 반포 사이의 3년 기간은 예정에 없었던 교정 한자음의 표기를 위한 보충작업 즉 교정 한자음의 확정이나 그에 따른 초성의 추가 제자에 소요되었으리라는 것이다.<sup>10)</sup> 물론 초성의 추가 제자는 별도의 문자를 새로 만들지는 않고 기왕의 문자를 활용하여 並書, 連書 등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世宗 28년에 반포된 「訓民正韻」에는 初聲이 분명 17개가 아니고 그 이상이면서도 정음 28자가 끝까지 고수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

숙히 침투한 한자어의 그것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며 국어에 동화된 음을 原音에 가깝게 교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양자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한자음을 原音에 가깝게 교정하려 한다면 결국 地名은 물론 개인의 성명까지도 교정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한자음 교정을 계획한 世宗의 의도가 과연 개인의 성명까지도 고치려 했었는지, 흥미로운 과제라 하겠다.

- 8) 집현전 교리인 崔恒등에게 諺文으로 韻會를 번역하게 한 것은 世宗 26년(1444) 2월이다.
- 9) 申叔舟와 成三問 등을 요동에 보내 韻書에 대해 질문하게 한 것은 世宗 27년(1445) 1월임.
- 10) 물론, 일단 완성된 正韻의 시험이나 解例의 저술 등에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었겠지만 단지 이들 작업만이라면 3년까지는 소요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반포 사이의 3년 동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작업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대체로 이 기간 동안에 正韻 28字에 중대한 修正이 가해졌으리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이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正韻 28字에는 별 修正은 없었고 단지 본래 예정에 없던 漢字音 교정에 따른 교정 漢字音 책정이나 그에 따른 初聲의 추가 제자 등이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이다.

어쨌든 正音의 初聲이 처음에는 17자 안팎이었다가 東國正韻式 한자음의 표기를 위해 나중에 23자로 확대되었다면 正音의 17 初聲 특히 그 목록결정 과정의 논의에서는 東國正韻式 한자음이 고려될 필요는 없다.

正音 17初聲의 목록이 순수 국어음을 분석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고, 東國正韻式 한자음도 이에 무관하다면 正音 제작자들은 무엇을 토대로 초성의 목록을 결정했을까? 우리는 그것이 국어식 한자음이었다고 보며, 바로 거기에서 正音의 初聲體系에 몇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어의 표기를 위한 正音의 초성목록이 순수 국어음의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래어인 한자음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sup>11)</sup> 얼핏 논리에 어긋난 얘기처럼 들릴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시의 正音제작자들이 正音의 제작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음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 漢字音에 관한 韻書이론 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쉽게 수긍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正音의 초성체계는 韻書의 字母體系에 근거하고 있다.

正音의 초성체계가 당시 새로 창안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韻書體系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은 正音의 초성 제작과정에서 목록의 결정보다 체계의 수립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음운체계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음소목록을 결정하는 순서의 작업에서는 목록작성이란 결국 기존 체계의 목록에서 필요한 것을 추려내는 식의 작업이 되기 쉽다. 당시의 기존 초성체제란 곧 韻書의 36 字母體系이니 正音의 초성목록은 결국 韻書의 36 字母에서 국어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순수 국어음이 아닌 국어식 한자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正音 17초성의 목록이 실제로 韻書의 36 字母에서 순경음과 순중음, 그리고 치두음과 정치음,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을 없애고, 全濁音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며, 이것은 또한 당시 국어의 자

11) 姜信洸(1987) p. 40에도 '正音 제작시에 당시의 국어를 직접 분석하지 않고 당시까지 전해 오면서 국어의 語音으로 化한 朝鮮漢字音을 먼저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자세히 논증되지는 않았고, 그러한 결론이 내포하는 여러가지 의미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음목록보다는 국어식 한자음의 초성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어식 한자음의 실태에 대해서는 東國正韻序 등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중 주목되는 한가지는 중국어와 국어에는 濁聲이 있는데 국어의 한자음에만 濁聲이 없다는 지적이다.

我國語音 其清濁之辨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東國正韻序)

즉 국어에 濁聲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正音의 17初聲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17初聲의 목록이 국어음보다는 국어식 한자음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학자들도 국어와 중국어 즉 운서의 초성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어음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국어에 한자어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쓰이고, 그 음도 국어에 동화된 것이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국어식 한자음만으로도 국어의 초성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한자음으로 작업하는 것이 기존의 韻書體系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正音이 일단 완성된 후에 한자음의 교정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초성의 목록작성 과정에서 국어식 한자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그것이 韻書의 原音에서 심하게 訛傳되어 있음을 확인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正音의 초성목록이 일차적으로 국어가 아닌 한자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正音의 초성체계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온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원인규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선, ‘ങ’이나 경음이 正音의 초성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전적으로 당시 한자음의 초성에 이들 자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2)</sup> 또한 ‘ㅇ’이 牙音의 기본자로 제자되지 못한 것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한자음의 초성에서 ‘ㅇ’이 ‘ㅇ’과 변별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즉 ‘ㅇ’과 ‘ㅇ’이 변별되지 못함으로 해서 처음의 제자목록에서는 牙音의 不清不濁音자리가 빈

12) 당시 국어 한자음에 脣輕音「脣重音의 구별이 없었음은 東國正韻序에 증언되어 있고, 경음도 없었으리라는 것도 쉽게 추정될 수 있다. 현대 한자음에도 초성이 경음인 예는 喫(깍), 氏(씨), 雙(쌍)정도 뿐이다.



칸으로 비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ㅎ/이 /ㅇ/과 비슷한 소리라고 한 것도 한자음 초성에서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국어음에서의 현실이 그러했다고 볼 수 없다. 韻書나 한자음에서 /ㅎ/이 /ㅇ/과 변별되지 못하게 된 것은 음운변화의 결과로 ‘ㅎ’이 ‘ㅇ’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잘 알고 있었던 正音 제작자들은 /ㅎ/을 나중에 초성 목록에 추가하면서도 그것을 喉音계열로 분류하고 후음 기본자인 ‘ㅇ’에 변칙적으로 가획하여 제자하는 등의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ㄱ’이다. ‘ㄱ’이 17初聲의 목록에 당당히 끼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논리상 당시 한자음에서 ‘ㄱ’이 ‘ㅇ’등과 구별되어 음소로 존재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우선 한자음이 아닌 순수 국어에서는 ‘ㄱ’이 별개의 음소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解例 用字例에서 ‘ㄱ’의 예가 빠져 있다는 점이나 당시 문헌들의 국어 표기에서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初聲之ㄱ與ㅇ相似 於諺可似通用也”라는 解例 合字解의 기술 등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그렇다고 東國正韻式 한자음의 표기를 위해 ‘ㄱ’이 17 初聲의 목록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자음의 개정 방침이나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ㄱ’을 포함한 正音 28자가 일단 완성된 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시의 한자음 적어도 正音 제작자들의 발음에서는<sup>13)</sup> ‘ㄱ’이 ‘ㅇ’과 변별되는 음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4)</sup>

13) 현대의 외래어인 영어 발음에서 보통사람들은 어두의 /r/과 /l/을 잘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지만 영어에 익숙한 전문가들의 발음에서는 이들이 구별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15세기의 한자음, 발음에서도 ‘ㅇ’과 ‘ㄱ’이 비슷한 사정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정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4) 東國正韻序에는 당시 한자음의 혼란상에 대해 여러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ㄱ’과 ‘ㅇ’이 혼동되고 있다는 지적은 없다. 그렇지만 ‘ㄱ’이 당시의 국어식 한자음에서 분명히 변별되는 음소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우리에게 없다. 지금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여러 상황을 우리 생각대로 정리했을 때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뿐이다. 어쨌든 喉音 계열과 /ㅎ/은 그 목록 결정이나 제자에서 여러번 시행착오나 수정이 거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ㅎ/이 /ㄱ/의 자리에 들어가고 /ㄱ/은 없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국어음의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고 한자음을 토대로 하여 목록이 작성되고 그 목록에 따라 제자된 正音의 초성체계는 그것을 실제 국어 표기에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正音 제작자들에게도 곧 확인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正音 28자 체계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것은 곧이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나 중국한자음의 표기를 위해 正音이 확대(추가 제자)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누락되었던 ‘병’은 中國音 표기를 위한 唇輕音字로, 경음은 並書字에 의해 표기가 가능해졌으며 ‘ㅇ’도 용도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ㅇ’은 끝까지 제자상의 문제로 남게 되었지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문자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했으므로 고치지 않고 解例에서 그 연유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문제점에 대한 이런 불완전한 조치는 후대로 오면서 초성문자체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즉 경음의 표기는 15세기 당시부터 各自並書나 合用並書 등으로 혼란을 보이다가 현대 정서법에서는 결국 各自並書로 정착되었으며, ‘ㅇ’은 한자음이나 사이시옷의 표기 등에 쓰이다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폐지와 함께 폐기되었으며 ‘ㅇ’은 그 음가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ㅇ’으로 대체되어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 III. 中聲體系와 音韻現象

우리는 II장의 논의에서 한자음을 토대로 한 초성목록의 작성경위와 그에 따라 발생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正音의 음소목록 작성경위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中聲의 경우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본 논의에서 初聲의 경우만을 다룬 것은 中聲의 제자는 초성과는 달리 기존의 韻書體系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거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中聲

의 경우는 그 목록의 작성이 한자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적극적인 증거나 그에 따른 목록상의 문제가 별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中聲의 경우는 오히려 韻書등의 기존 이론에 의지함이 없이 어떻게 독창적인 중성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성의 제자원리를 중심으로 음운체계 수립과 관련한 당시 正音 제작자들의 작업내용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解例 制字解에서는 中聲 11자의 제자방법에 대해 우선 天, 地, 人을 象形하여 기본자 ‘·, 一, |’를 만들고 이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나머지 자들을 만들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解例의 설명은 中聲字들의 字形 유래에 대한 의문은 일단 충분히 해소시켜 준다. 그러나 동시에 중성의 제자과정에 관한 중대한 과제 하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도 있다. 그것은 여러 중성들 중에서 왜 하필 /·, 一, |/의 세 중성이 기본자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발음기관을 象形했다는 초성의 기본자에 대해서는 각 조음위치별로 가장 약한 소리들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解例는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중성의 기본자 선정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중성의 기본자 선정 근거는 중성체계의 수립과정이나 전 제자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로 보인다. 따라서 解例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재로서 이 문제에 접근 할 수 있는 길은 역시 결과를 통한 추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正音 제작자들이 中聲의 제자를 위해 설정한 中聲體系를 解例의 여러 설명에 의해 재구하면 다음과 같은 3계열, 3서열의 체계로 확인될 수 있다.

## (2) 正音의 中聲體系

이것을 초성의 제자체계와 비교해 본다면 음양에 따른 3계열의 분류는 초성을 조음위치에 따라 5(7)계열로 분류한 것에 해당되고 口의 長蹇에 의한 3서열의 분류는 초성의 ‘厲’에 의한 3서열의 분류에 비교될 수 있을

	양 모 음	음 모 음	중 성 모 음	
기본자	•	—		○不蹙不張
합성자	ㅓ(ㅓ)	ㅜ(ㅜ)		○蹙
〃	ㅑ(ㅑ)	ㅣ(ㅣ)		○張
	舌縮, 声深	舌小, 縮 声不深不淺	舌不縮 声淺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한 가정은 中聲의 3서열도 결국은 초성과 같이 소리의 세기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즉 중성의 경우도 3계열의 가장 약한 소리들이 기본자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실제로 /•, —, |/의 세 모음이 가장 약한 모음들이라는 사실에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초성이나 중성이나 기본자는 모두 象形의 같은 원리에 의해서 제자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의 추정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본자의 선정기준을 초성과 중성에서 서로 다르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만약 같은 기준이었다면 解例 작성자들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 中聲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수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성의 기본자 선정 기준도 초성의 경우와 같이 소리간의 상대적 세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단 전제한다.

## 2.

우리의 추정대로 중성의 경우도 초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계열에서 가장 약한 소리들을 기본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다음 문제는 당시의 正音 제작자들은 여러 소리들 사이의 상대적인 세기를 어떻게 측정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解例에 언급된 다른 音韻資質들 예컨대 혀의 구부러짐(縮)과 펴짐, 그리고 소리의 얇고 깊음 등은 실제 조음이나 음성의 관찰에 의

해, 그리고 淸濁이나 조음위치는 기존의 韻學 지식에 의해 쉽게 파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컨대 /ㅅ/이 /ㅆ/보다 약한 소리라는 점이나 /ㅇ/가 /ㄱ/보다, 그리고 /ㄱ/는 /ㅋ/보다 약한 소리라는 것 그리고 이들 /ㅇ, ㄱ, ㅋ/가 한 계열의 소리라는 것 등은 특별한 관찰수단이 없는 한 쉽게 얻어지기 어려운 결론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淸/濁이나 深/淺 등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자질들보다는 세기나 음양등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자질들이 오히려 字形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어쨌든 解例에는 이들 자질들의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또 한번의 추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특별한 장치나 기존 이론없이 음운자질을 파악하거나 자연부류에 따라 음을 분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란 음운현상을 관찰,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5세기 正音 제작자들도 당시의 음운 현상을 관찰, 분석하여 正音의 제자에 이용된 '厲'나 음양 등의 자질을 파악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음운현상이 오늘날처럼 순수한 학문적 대상으로서 당시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었는지의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正音 표기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음운현상들이 正音 제작자들의 관찰대상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옛의 갖'(孤皮)을 '옛의 갖'으로 쓴다는 解例의 표기법 규정 즉 '八終聲可足用'의 원칙은 이른바 中和라고 불리는 음운현상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中和 현상이 당시 학자들의 관찰대상이 되었다면 다른 음운현상의 경우도 관찰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어쨌든 당시 학자들이 당시의 국어 음운현상들을 두루 관찰했다면 음양등의 자질이나 厲의 정도 등은 결국 거기에서 얻어졌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이런 추정은 正音의 초, 중성 제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소리의 세기 서열이나 음양에 따른 中聲의 분류 등 正音의 제자체계가 당시의 몇가지 음운현상을 분석했을 때 얻어지는 그것과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우선 당시의 음운현상들은 몇가지 살펴보자. 잘 알려진 현상들이므로 예

는 간단히 들기로 한다.

(3) 15세기 국어의 음운현상

① 母音調和

벽매 (← 벽몹+애), 싸호아 (←싸호+아)

굴허에 (←굴형+에), 드리 (←들+어)

② 母音脫落

크+어→커, 프+어→퍼 (ㅍ→ϕ)

탁+아서→타서, 꺾+아→파 (ㄷ→ϕ)

아버(父)+이→아비, 가치(鵲)+이→가치 (ㅣ→ϕ)

③ Glide化

부터+이→부터, 쇼+이→쇠 (ㅣ→ㅈ)

오+아→와, 비호+아→비화 (o→w)

④ 中化

일우+어→일위, 계우+어→계위 (u→w)

엿의갓→엿의갓, 굿+디→굿디 (ㅈ→ㅅ)

맛+거늘→맛거늘, 닛+디→닛디 (ㅈ→ㅅ)

⑤ 子音接變(鼻音化)

달+ㄴ니라→다ㄴ니라, 똥+ㄴ→디ㄴ

앞에서 살펴본 몇가지 음운현상들은 우리에게 몇가지 음운자질과 그에 따른 음의 자연부류를 말해준다. 우선 ①의 모음조화현상은 당시의 모음들이 크게 3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즉 ‘·, ㅏ, ㅑ’와 ‘ㅡ, ㅓ, ㅕ’가 각기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루고 ‘ㅣ’는 중립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데 이는 정음의 제자에 반영된 음양자질에 의한 체계와 그대로 일치한다. 또한 음양의 대립에서 ‘·’와 ‘ㅡ’, ‘ㅏ’와 ‘ㅑ’, 그리고 ‘ㅓ’와 ‘ㅕ’가 각기 대립의 짝이라는 사실도 母音調化 현상은 보여주는데 이것 역시 正音의 中聲字形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의 母音脫落현상은 모음과 모음의 연결시 주로 탈락하는 모음이 ‘·, ㅡ, ㅣ’라는 사실을, 그리고 ③의 Glide化 현상은 모음과 모음의 연결시 음절성을 잃는 모음이 ‘ㅣ, ㅏ, ㅑ’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현상에 의해 모음간의 상대적인 강도 위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 一, 丨 < 丿, ㄷ < ㅏ, ㅑ의 3 단계가 될 것이다. 이것은 中聲의 제자시 ‘·, 一, 丨’는 天, 地, 人 象形에 의한 기본자로, 丿와 ㄷ는 ·와 一의 합성으로, ㅏ와 ㅑ는 ·와 丨의 합성으로 제자되어 결국 3 단계의 제자가 이루어진 것과 일치되어 주목된다. ④ ⑤의 中和나 비음화 현상은 ‘유기음→평음→비음’의 일정한 자음변화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자음들 사이에 이와 같은 일정한 서열이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역시 初聲의 제자시 이용된 ‘厲’에 의한 서열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이와 같은 正音의 제자체계와 당시 음운현상의 분석 결과의 정확한 일치가 과연 우연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음운현상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 正音의 제자체계가 개발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른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 한 일단 당시의 정음 제작자들이 음운현상을 면밀히 관찰,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正音의 제자체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당연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한가지 근거로서 ‘15세기의 母音調和는 이미 당시의 모음체계와는 유리된 현상이었다’는 李基文(1972)의 지적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즉 李基文(1972)에 따르면, 전기중세국어 단계까지는 국어의 母音調和 현상이 모음체계상의 후설모음 : 비후설 모음의 대립과 일치하지만 正音이 만들어진 15세기에는 이미 母音推移가 진행되어 母音調和는 母音體系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5)</sup> 따라서 正音 제작자들이 母音調和현상의 관찰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正音의 中聲體系를 수립했다면 母音調和 체계와 완전 일치하는 양모음 : 음모음의 대립체계는 수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와 ‘一’ 그리고 ‘丿’와 ‘ㄷ’가 각기 그 대립의 짝이라는 사실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解例는 中聲의 3 계열이 舌縮, 舌小縮, 舌不縮의 차이에 의해 분류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선뜻 혀의 구부러진 정도

15) 李其文(1972), p. 133. 참조

에 의해 증성을 세 계열로 분류한다는 착상은 나오기 어려워울 것이다. 우리는 혀의 구부러지고 퍼짐이 3단계로 관찰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母音調和 현상의 관찰에 의해 中聲의 3계열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혀의 상태를 관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상의 추정과 같이 正音의 제작자들이 당시의 음운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거기서 얻어진 결론으로 正音의 체계를 수립하고 그 체계에 의해 체계적인 제자를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正音의 문자 체계나 전 제자과정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당시의 음운현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여러 음운현상들이 제자의 여러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한 것은 주로 제자를 위한 음운체계의 수립이나 그에 따른 음운자질의 설정에 음운현상의 분석 내용이 크게 기여했으리라는 것인데 논의를 확대한다면 음소목록의 작성 과정에서도 그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여기에서 일단 멈추기로 한다. 그것은 현재의 결론들도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가정에 의한 가정의 연속으로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세기에 과연 국어의 음운현상들이 제대로 관찰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었느냐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고 음운현상과 관련한 우리의 논의를 일단 정리하기로 한다.

음운현상이 제대로 포착, 관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확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15세기에 과연 국어의 정확한 형태소 분석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을 借字表記의 오랜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삼국시대 이래의 한자를 이용한 借字表記는 근본적으로 국어와 漢文과의 문법적인 이질성에 비롯된 것으로(正音의 창제동기도 결국은 마찬가지이다) 그 기본 원리는 국어의 형태소분석을 통하여 체언이나 동사의 어간 등 意味形態素는 대개 한자의 釋을, 그리고 조사나 어미 등 文法形態素는 주로 한자의 音을 빌어 적는 것이었다. 따라서 借字表記의



오랜 전통이 국어의 형태소 분석 능력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15세기에는 음운현상의 관찰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산만했던 논의를 정리해 보자.

正音의 제자원리를 解例의 설명대로 이해하고자 할 때 즉 中聲의 경우 天, 地, 人을 象形하여 기본자 ‘·, —, |’를 만들었다고 볼 때 여기에는 우선 하필 /·, —, |/의 세 모음이 기본자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서 初聲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中聲의 세 계열에서 가장 약한 소리를 골라 기본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면 이제는 각 소리들 사이의 상대적인 세기 측정이나 중성에 대한 3계열의 분류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이 正音의 제자체계가 당시 음운현상의 분석을 통한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正音 제작자들이 당시의 음운현상들을 면밀히 관찰, 분석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으로 正音의 제작에 필요한 資質의 설정이나 制字體系를 수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解例에 언급된 여러 音韻資質 중 ‘厲’나 음/양 자질은 字形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舌縮(小縮, 不縮)자질이나 口張(鑿)자질 등은 字形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舌縮, 口張등의 자질이 解例에 등장한 것은 음운현상의 분석으로 일정한 체계(中聲)가 수립됨으로써 그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 IV. 맺음말

「訓民正音」(解例本)의 출현을 계기로 활기를 띠었던 正音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解例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해설과 혹은 그에 대한 몇가지의 문제기 정도의 성과를 거둔 채 최근 다시 침체된 느낌을 받는다. 물론, 解例의 내용만으로 正音에 관한 모든 의문이 완전 해소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정이 결코 그렇지 않다. 즉 解例는 분명 우리에게 正音의 제자원리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숙제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正音연구에서 解例가 부여한 많은 숙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正音에 관한 解例의 몇가지 숙제들을 우선 과제로 확인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풀어보기 위한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선정한 과제는 크게 보아 두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正音의 음소목록 작성경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初聲의 목록이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제자를 가능케 한 ‘厲’등의 음운자질 설정과 그에 따른 음운체계의 수립이 당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물론 解例등에서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正音이라는 완성된 결과와 解例등의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정음 제작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상식적인 추리에 의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추정한 여러 결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正音의 초성목록은 애초 순수 국어보다는 국어식 한자음을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正音의 초성체계에서 발견되는 몇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즉 국어에는 필요없는 ‘ㄱ’이 17초성의 목록에 들어있고, 반대로 /ㄱ/이나 경음들은 누락된 점 등은 순수국어음을 분석하여 초성의 목록을 작성했다고 볼 경우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며 한자음을 고려했을 때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다. 또한 正音의 초성체계가 한자음체계인 韻書의 字母體系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나 당시 학자들이 국어식 한자음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도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한편 이러한 추정 과정에서 우리는 正音 제작자들의 漢字語 정책(발음과 표기에 관한)이 正音제작을 전후로 크게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즉 「訓民正音」의 간행시에는 분명 한자음의 교정의지가 확인되고 교정 한자음만이 표기에 채택되었지만, 이러한 한자

음 교정 방침이 세워진 것은 분명 正音의 일차 완성 이후라는 것이다. 이것은 正音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東國正韻式 한자음은 正音의 음소목록(28개) 작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자음 교정은 正音 창제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正音 완성과 반포 사이에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다. 즉 3년 동안에는 韻書의 연구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확정 그리고 그에 따른 초성자의 추가제자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반포시의 正音 初聲은 분명 23초성인데 그중 17초성만이 단문자로 제자되어 있고, 正音은 항상 28자로만 지칭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正音의 제자에 이용된 ‘厲’나, ‘음/양’등의 음운자질 설정이나 그에 따른 음운체계 수립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한 것은 母音調和등 당시 국어의 음운 현상을 분석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무엇보다도 正音의 初, 中聲 체계가 실제로 당시의 음운현상을 분석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厲의 정도에 의한 초성의 서열은 中和나 子音接變 현상에 의해 확인되는 자음의 위계와 그리고 음모음, 양모음의 구별은 당시의 실제 모음체계보다는 音韻調和 현상의 대립체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正音의 中聲體系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한 것은 ‘·, 一, |’의 세 모음이 中聲의 기본자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가 解例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中聲의 기본자 대상 선정기준이 初聲의 그것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잠정적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正音의 中聲體系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본 논의에서의 두가지 결론은 얼핏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국어의 음운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음운자질이나 음운체계를 설정했을 가능성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正音의 초성목록이 순수 국어음보다는 한자음을 분석하여 작성되었고 그 체계도 韻書의 字母體系에 근거한다고 하니가 말이다. 그러나 위의 두 결론은 결코 모순은 아니

다. 그것은 正音의 제작과정이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작업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등장한 正音의 初聲體系는 실제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면 분명해질 수 있다. 즉 초성체계 하나는 분명 韻書의 字母體系를 축소한 것으로, 이것은 正音 제작시 초성의 목록 작성 과정이나 「訓民正音」에서의 음가 설명 등에 이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象形, 加畫의 원리에 의한 제자시에 사용된 제자체계를 말한다. 전자는 調音位置와 淸濁에 의한 체계이고 후자는 淸濁대신 ‘厲’에 의한 체계이다. 이처럼 初聲의 제작과정에서 두가지 체계가 등장한 것은 正音의 初聲이 韻書의 기존 이론과 正音제작자들의 새로운 창안 이 두가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초성의 목록작성 단계에서는 韻書의 體系나 이론에 주로 의존했지만 목록에 대한 제자 단계에서는 국어의 관찰을 통한 독창성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본 논의에서의 두가지 결론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결론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못한 것 같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參考文獻〉

- 姜信沆(1974), 譯註 訓民正音, 新丘文化社.  
\_\_\_\_\_(1987), 訓民正音 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姜昶錫(1987), 國語의 音韻現象과 音韻資質, 울산어문논집 4집.  
金允經(1954), 韓國文字及語學史, 東國文化社  
金完鎮(1975), 訓民正音 子音字와 加畫의 原理, 語文研究7.8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_\_\_\_\_(1983), 訓民正音 制字經緯에 대한 새 考察, 金哲俊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產業社.  
\_\_\_\_\_(1983), 한국어 文體의 發達, 韓國語文의 諸問題, 一志社.  
南廣祐(1973), 朝鮮(李朝)漢字音研究, 一朝閣.  
兪昌均(1963), 訓民正音 中聲體系構成의 근거, 語文學10, 韓國語文學會.  
\_\_\_\_\_(1966), 東國正韻研究, 螢雪出版社.  
李東林(1977), 訓民正音 創制經緯에 對하여 國語學論文選7(文字), 民衆書館.  
\_\_\_\_\_(1972), 國語音韻史 研究, 塔出版社.  
李基文(1974), 訓民正音에 關聯된 몇 問題, 國語學2, 國語學會.  
\_\_\_\_\_(1976), “최근의 訓民正音研究에서 提起된 몇 問題”, 震檀學報42.